최진석의 횡설종설

예향(藝鄕)의 힘

광주 사람의 자부심은 예향(藝鄕)을 통해 확인되고 더욱 키워진다. '예향'은 '예술의 기운이 흐르는 동네'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겠다. 그런 연유인지 광주에는 예술가도 많다. 심지어는 변두리 조그만 다방에만 들어가도 수묵화 몇 점 걸려 있는 풍경을 보통의 일로 접할 수 있다.

예술은 모든 정해진 것들과의 저항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한다. 그런 예술적 생명력이 저항하며 흘러 남긴 흔적들이 미술사를 이루고 음악사를 이룬다. 저항의 기운은 그래서 예술의 원천이 된다. 삶의 탁월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광주에 가면 탁월한 입맛도 누릴 수 있다. 혁명의 기운은 길고 깊게 배어 있다. 모두 광주가 '예향'이기 때문이리라.

'예술의 기운'이라. 그것은 도대체 뭔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우리는 피아니스트라고 한다.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피아노를 위해 만들어진 곡들을 수준 높게 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피아니스트가 경지에 올라 피아노 연주에만 갇히지 않고, 피아노의 범위를 벗어나 '음악'의 지경으로 진입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피아니스트로 부르지 않고 음악가(뮤지션)라 부르게 된다. 이제 그 사람은 피아노보다 훨씬 높고 훨씬 넓은 범위인 '음악' 자체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뮤지션이 또 경지가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어, 음악의 세계만을 표현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음악이라는 형식을 통해 '인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혹은 '인간과 세계 자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을 계속 뮤지션으로만 부르지 못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그를 궁극적 인간의 형상을 한 '예술가'(아티스트)로 불러야 할 것이다.

피아노를 친다고 모두 음악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음악이나 미술을 한다고 모두 예술가의 반열로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에 대한 혹은 문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체득이 드러나야만 '예술'로 받아들여진다. 야박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인간에 대한 체득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이나 '인간이 그리는 무늬'(人文)를 접촉하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예술가가 인문학과 만나는 지점이다. 예술가가 인문학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학문적 지식을 단순에 건너 뛰어버리는 '인문적 통찰'력은 있다. 지식이 마침내 넘고자 하는 봉우리를 불안한 고뇌로 빚어진 고도의 감각으로 단숨에 넘어간다. 그가 예술가라면 그렇다는 말이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의미로 고정될 수 있다면 이미 무늬도 아니다. 예술가의 고뇌는 여기서 시작된다. 즉 '이 무늬'에서 '저 무늬'로 이동하는 인간(문명)을 보면서 '이곳'에 있는 자신이 '저곳'을 봐버린 것이다. 이곳과 저곳 사이에 걸쳐져 있는 자신은 분열을 겪는다. 저곳으로 건너가기 위해 이곳에 저항하는 모습이다. 익숙한 '이곳'에 대한 배반이며 변신이다. 혁명가와 예술가가 중첩되는 지점이다.

배반의 출렁거림은 종종 정신병을 유발한다. 예술가가 자신을 창조적이지 못하다고 자학하는 것은 바로 저곳으로 잘 건너가지 않는 자신에 대한 지독한 자발적 학대일 뿐이다.

예술가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예민한 감각으로 인간이 나아가는 길을 먼저 보는 사람이다. 우리가 갤러리에 가는 이유도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 도도한 흐름을 먼저 봐버린 사람이 남긴 것들을 통해 느껴보기 위해서다. 결국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영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영감을 창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진 사람이 이미 지나간 것에 갇혀 있다면 예술가가 아니다. 예술가가 정치가나 이념가로 전락하는 일은 이렇게 일어난다. 혁명가였던 사람이 혁명의 기억에 갇히면 반항아로 전락하듯이, 예술가도 과거 자신이 했던 창조의 기억에 갇히면 기예가나 화공으로 전락한다.

예술가여! 예술의 정신은 '먼저 보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자. 먼저 보는 일은 익숙한 자신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다. 저항의 힘을 잃고, 저항했던 기억의 지배를 받는다면 당신은 이제 예술가는 아니다.

잭슨 폴락의 그림에서는 폴락 사후 25년이 지난 후에나 체계적으로 발표된 프랙탈 이론이 발견된다. 반 고흐는 몇 편의 그림에서 50년 후에 발표될 유체역학의 '콜모고로프 척도'를 구현하였다. 먼저 본 사람은 남몰래 봐버린 그것을 '갑자기' 드러낸다. 예술의 힘이다.

혁명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따라 계속 변절하는 힘의 활동이다. 예술은 변절을 감행하는 자가 오로지 자신만의 눈빛을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일이다. 나의 고향 '예향'은 여전히 '예향'인가?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종교칼럼

출가 20년, 여래들의 멋진 행진

송지은
원불교 교무·광주원음방송 편성제작팀장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활이 부유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 끝없이 차오르는 욕심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늘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과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얼마 전 우리 방송에 특별한 손님들이 출연했다. 개인의 모든 안락과 욕심을 놓고 원불교에 출가한 성직자들 가운데 올해 출가 20주년을 맞이한 '여래학년' 교무들이다. 원불교에 출가하기 위해 원불교학과에 입학하는 학년마다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종법사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당시 원불교 3대 종법사 대산종사께서는 올해 출가 20주년을 맞는 이 학년에게 여래(如來)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여래학년이 입학할 당시 대산종사께서는 부처님이 떼로 몰려오는 꿈을 꾸고 천여래 만보살이 될 부처들이라는 뜻으로 여래학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한다.

여래학년 교무들은 대학시절인 예비 교무시절에 누구보다 가까이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이자 어버이였던 당시 지도 교무와 함께 출연을 했다. 퇴임을 앞두고 백발이 성성한 원로 교무를 모시고 출가 20년을 회고하는 여래학년 교무들의 모습은 모두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로 돌아간 듯했다. 여래학년 동기인 나 역시 방송을 진행하는 내내 그 시절 추억에 잠겨 이야기꽃을 피웠다.

예비교무시절, 새벽 좌선부터 시작해 수양정진 시간과 학교공부, 봉공 활동에 이어 하루를 대조하는 저녁 일과까지 매번 빡빡한 일정이 진행되었다. 매일 새벽이면 쏟아지는 잠을 뒤로하고 별이 총총히 떠 있는 하늘을 보며 새벽 좌선을 하러 대각전을 향하던 때의 기억은 늘 새롭게 다가온다.

당시 '부모님 모시기' 행사는 큰 의미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느 날 원불교에 출가하겠다고 집을 나설 때 아무리 신심 깊은 부모라도 자녀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섭섭하고 아쉽기 마련이다. 부모님 모시기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학년 전체가 각자의 부모님을 원불교 중앙총부로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야반도주(?)를 해서 출가를 단행한 어느 도반(道伴·함께 도를 닦는 벗)의 부모도 이전까지 평생 독신으로 살아갈 딸의 앞길이 막막하다고 울먹이다가 '부모님 모시기' 행사를 통해 마음을 녹이고 안심을 얻었다. 자녀가 가는 공도의 길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학년이 되면 교무고시에 통과해야 예비교무 과정에서 진급할 수 있기에 너도나도 공부에 몰두하는 시기다. 참으로 이상한 건 조반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서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법정이 앞서곤 했다.

올해 출가 20주년을 맞는 60명의 여래동기들은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곳곳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천직으로 알고 정성으로 일구고 있다. 멀리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원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흑인 아동들의 엄마로 살아가기도 한다. 또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현지인들과 마음을 나누는 도반들도 있다. 국내에서도 때로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또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개인의 편안함은 뒤로하고 고단한 삶을 기꺼이 선택해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

누구나 인생을 잘 살아보려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참으로 잘 산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나와 내 가정에 머무르는 마음의 국을 넓혀 고루 두루 널리 공익을 위한 나눔을 행할 때 인생의 값진 보람이 다가올 거란 생각이 든다.

기고

광주 세계수영대회, 이젠 맘껏 기뻐하자

기노심
광주시생활체육 수영연합회장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광주생활체육 수영연합회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감출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까지 무려 154명의 의원들이 기꺼이 이 법의 개정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광주 세계수영대회 유치과정의 일부 실수를 둘러싸고 '문서조작'이니 '정부지원불가'니 하는, 다소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에 놀라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누구보다도 수영을 사랑하고 즐기는 많은 수영인들은 잠시나마 망연자실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치 추진과정에서 각 후보국가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다소의 난관과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결국 국제수영연맹의 회원국들이 광주를 선택해 준 것은 광주시민의 쾌거요, 대한민국 수영인들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대회인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한 것에 대한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문제가 됐던 '공문서 조작 시비'는 정부가 지난해 4월 이미 파악하고 광주시에 대해 감사까지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3개월이 지난 후인 개최지 선정 당일에 한 중앙지에 대서특필된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었다. 어쨌거나 이 문제로 기소된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라는 가장 관대한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각종 악의적인 표현들로 인해 상처를 입은 광주 시민과 수많은 수영동호인들은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하고, 또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본 대회와 아마추어대회가 통합되면서 무려 202개국에서 약 3만7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26일간 광주에서 숙박하며 경기를 한다. 올림픽의 경우 약 1만7000명이 15일간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분산 개최되는 것과 비교해 봐도 수영대회는 세계최대 규모의 스포츠 제전인 것이다.

서울은 88올림픽 이후 그리고 부산은 아시안게임 이후 각각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며 비상했다. 광주도 도시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2019세계수영대회를 기점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재정비, 교통관광문화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식도 국제수준에 걸맞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사 증여세 감면 등 축산 후계자에게 혜택줘야

지금 조류독감이 퍼져 난리인데다가 해마다 각종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제 곡물 값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한 사료 값 등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축산 농가들이 처한 현실이다. 축산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심하게 악화되고 농촌의 인력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축산을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한가지 중요한 제도로써 축산 후계인력 확보 차원에서 축산인 2세들이 축산 경영을 위해 축사나 축사 부지를 이어받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해줬으면 한다.

현재 제도는 영농자녀의 경우 부모가 경작하던 토지를 영농자녀가 3년 이상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 후 토지를 증여받으면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축산업의 신규인력이라 할 수 있는 축산 후계자가 부모님의 대를 이어 목장을 경영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 혜택이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축산후계자들의 불만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축산후계자인 아들이 독립적으로 목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축사나 축사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물려주고자 하지만 공시지가의 약 25%나 되는 감면세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나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 가까운 목장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엄청 비싸다 보니 축사를 후계자에게 물려주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낙농업의 경우 대부분이 대도시 근처에 많기 때문에 축사부지의 공시지가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 대를 이어 축산업을 하는데 그 세금부담이 더욱 큰 부담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축산업에 관한 세금제도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상욱·목포시 대방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기름 유출 가해 선사 '뒷짐'만 지고 있다니

〈船社〉

여수 기름 유출사고의 가해 선사(船社)인 싱가포르 오션탱커스가 해양 오염과 어민 피해 등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이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돌사고 이후 21일이 지났는데도 사과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오션탱커스 소속 우이산호가 규정보다 빠른 속도로 돌진해 GS칼텍스 소유의 송유관 3개를 파손하면서 발생했다. 그런데도 오션탱커스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방제 대책이나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피해자인 GS칼텍스의 신속 대처와는 대조적이다. GS칼텍스는 사고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류 유출 사고로 국민의 마음에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방제 비용과 의료비 등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인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이라도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즉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하지만 유출 사고의 직접적 가해자인 오션탱커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우이산호의 사고 소식을 알게 돼 유감"이라며 "선박 앞 부분에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름 유출은 없었고, 선원 모두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렸다. 사고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피해 현장에서 지금까지 선사 측 관계자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고 현장인 한국에 공식적인 대응 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책임 회피이자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션탱커스는 세계적인 해운 그룹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1차적으로 공식 사과와 함께 방제 및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 후 보상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가해 측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다. 여전히 뒷짐만 진다면 국제적인 신뢰 추락에 이어 비난만 받게 될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 보완대책 서둘러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망국병'으로 일컬어지는 사교육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학교수업 공동화의 주범인 선행학습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과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 한두 학년 앞서가는 것은 기본일 정도로 보편화됐다. 일부에선 "학원에서 배웠지"라며 건너뛰거나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별법은 이같은 파행과 비정상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평가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가 이를 위반할 때는 인사징계나 재정지원 중단, 정원·학과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선행학습이 주로 이뤄지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광고 및 선전만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도 마련하지 않았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셈이다.

광고 금지에도 학원가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학교에서만 선행교육이 금지됨에 따라 불안해진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로 몰리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행학습의 개념도 애매해 예습이나 심화학습과 구별할 기준이 막막하다. 무엇보다 선행학습을 불러온 수능체제와 대입제도는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특별법이 '탁상 행정'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학교수업 쇄신방안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無等鼓

'동기호태'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곡은 '이룰 수 없는 꿈'(The Impossible dream)이다. 주인공 돈키호테가 부르는 이 노래가 흐를 때 사람들은 울컥한다. 누군가는 삶에 쫓겨 잃어버렸던 지난 꿈을 떠올릴 터다. 누군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에게서 자신을 봤을지도 모르겠다.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가 1605년과 1615년 발표한 '돈키호테'는 1억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다. 700 쪽이 넘는 완역본을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하지만 풍차를 거인이라 생각하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다들 안다. 돈키호테의 애마 로시난테, 돈키호테를 따르는 산초 판자는 오랫동안 우리와 친숙했다.

광주시립예술단체의 올 공연 계획을 보고 '돈키호테'가 떠올랐다. 국극단의 5월 정기공연 작품이 '돈키호테'를 비튼 '동기호태'여서다. 이번 작품은 '돈키호테, 조선시대로 들어오다'는 컨셉이다.

국극단은 지금까지 '흥보가' 등 정통 판소리와 기존 판소리를 재해석한 '봉사 심학규' 등을 공연했다. 임방울 등 역사 인물도 주소재였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예측 가능한 레퍼토리가 아쉬웠다. 반면 국립창극단의 레퍼토리는 때론 도발적이었다. 그리스 비극 '메디아',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를 각색한 '내 이름은 오동구'가 관객들을 만났다. 결과는 만원사례.

'동기호태'는 시립국극단의 행보 중 가장 파격적이다. 어쩌면 돈키호테같은 발상일지도 모른다. 돈키호테는 현실 감각이 없는 허무맹랑한 인물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위의 시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을 향해 뜻을 굽히지 않는 인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자'고 노래한 돈키호테가 2014년 광주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지 기대된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경영지원본부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 1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 2부	2200-651	〈FAX	222-8005〉
정치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사진부	2200-693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